

2024학년도 1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소통에 있어서의 말투와 이미지의 중요성]

이름	정연선
전공	행정학과
학번	20230331
참여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글말특강 (9회차)

저는 김수정 교수님의 말투와 이미지는 갈고닦을수록 좋다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양 수업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삶이라는 수업에서 비폭력 대화에 대해 배우며 삶에서 상대방과의 비폭력적인 소통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상이 누구든지 말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떤 말투와 이미지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보고 몸에 익히고 싶어서 이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의에서는 상대방과의 소통에서의 중요한 점은 비언어적 표현임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 표현보다 직접적이고 확실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표정, 몸의 방향 등이 언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거나 화가 나는 등의 감정의 변화에 따라 쉽게 드러날 수 있는 비언어적 표현에 유념하고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특히 공적인 자리나 저보다 권위가 있는 분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비언어적 표현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맞추는 행위를 실천하고 있기에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본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인이나 가족과 소통할 경우 너무 편한 나머지 비언어적 표현은 전혀 신경 안 쓰는 제 모습이 떠올랐고 반성하며 지난 저의 대화 태도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어 평소에 지인이나 가족을 더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들과의 소통에서도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상대를 존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소통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목소리였습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유명한 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표정,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에 사람들이 몰입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듣고 다시 생각해 보니 소통에서 중요한 점이 목소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예시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뉴스 앵커 분들입니다. 아나운서분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 바른 자세로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며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소통에서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중요함을 바로 깨달을 수 있었고 앞으로 발표와 같은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에 따라 목소리의 음질, 강세와 높낮이 등도 고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발표에 있어서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듣고 저의 지난 발표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자신감 없는 목소리와 발표를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만으로 빠르게 발표를 진행했었던 저의 모습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발표는 어떤 일이나 사실, 생각을 여러 사람에게 말하는 것인데 저의 지난 발표들은 몰입감을 유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발표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의 발표는 그 누구를 위한 발표도 아니었음을 성찰했습니다. 이번 강의로 오직 저만의 의지로 설득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충분한 발표 준비와 목소리 컨트롤, 문장에서의 강세를 주는 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최고의 발표를 이끌어내 볼 것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언어가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면서도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목소리의 강약과 음질 그리고 속도를 조절해 가며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셀프 칭찬을 통한 자신감을 키우는 법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한테 하는 칭찬이 조금씩 쌓여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발표에 자신감이 없고 발표한 후엔

저 자신을 질타하기 바빴고 발표라는 벽이 너무 높게 느껴져 앞으로도 뛰어넘을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소소하게 자주 셀프 칭찬을 통해 자신감부터 기르며 배운 내용을 활용해 한 단계씩 성장해 언젠가는 발표라는 높은 장벽을 허물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